

**단원 개관**

이 단원은 비판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설정하였다.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읽고 이야기 속 인물들의 생각을 까닭과 함께 살펴본 뒤 나의 생각과 까닭을 써 보는 활동에 중점을 두었다. 또 학교에서의 일 뿐만 아니라 이웃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떠올려 보며 친구와 생각을 이야기 나누어 봄으로써 의사소통 역량을 기를 수 있게 하였다. 학생들에게 친숙한 학교 안에서의 생활 속 문제로 접근하기 위해 「점심시간에 있었던 일」을 제제로 선정하였으며, 바른 생활, 즐거운 생활, 안전한 생활 교과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.

**학습 목표**

글을 읽고 까닭과 함께 나의 생각을 말할 수 있다.

**성취 기준**

영역	성취 기준
쓰기	[2국03-02]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한다. [2국03-04] 인상 깊었던 일이나 겪은 일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쓴다.
문법	[2국04-04] 글자, 낱말, 문장을 관심 있게 살펴보고 흥미를 가진다.
문학	[2국05-03] 여러 가지 말놀이를 통해 말의 재미를 느낀다.

**교수·학습 내용**

수업 과정		교수·학습 내용
도입	생각 열기	그림을 보고 운동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기
전개	학습 활동 1	「점심시간에 있었던 일」을 읽고 물음에 답하기
	학습 활동 2	「점심시간에 있었던 일」 속 인물들의 생각과 까닭 정리하기
	학습 활동 3	글을 읽고 '나'라면 어떤 말을 하겠는지 생각과 까닭 쓰기
	학습 활동 4	이어질 낱말을 생각하며 끝말잇기 놀이하기
	학습 활동 5	그림의 장면을 보고 나의 생각을 친구와 이야기하기
정리	배움 다지기	글을 읽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하기
		글을 읽고 까닭과 함께 나의 생각 말하기

**핵심 역량**

**의사소통 역량** 음성 언어, 문자 언어, 기호와 매체 등을 활용하여 생각과 느낌, 경험을 표현하거나 이해하면서 의미를 구성하고 자아와 타인, 세계의 관계를 점검·조정하는 능력이다.

**지도상의 유의점**

-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을 떠올려 보도록 유도한다.
- 제재를 통해 토의를 자연스럽게 학습하여 공동체 속에서 갈등을 조절하는 연습을 한다.
-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고 설득하기 위해 적절한 까닭이 필요함을 학습하게 한다.

**도입**

- ▶ **그림을 보고 운동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기**
- 그림을 살펴보고 운동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본다.

**전개**

**1 「점심시간에 있었던 일」을 읽고 물음에 답하기**

- 1 월요일 점심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?  
- 누군가가 찬 공에 우리 반 친구가 등을 세게 맞았다.
- 2 점심시간에 있었던 일을 해결하기 위해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은 무엇인가요?  
- 함께 생각해 보고 이야기를 나누어 여러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하셨다.

**2 「점심시간에 있었던 일」 속 인물들의 생각과 까닭 정리하기**

- 민준이의 생각과 까닭을 읽고 이해한다.
- 서영이의 생각과 까닭을 알아본다.  
- 생각: 점심시간에는 공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.  
- 까닭: 공을 가지고 놀면 발로도 차게 되기 때문이다
- 승수의 생각과 까닭을 알아본다.  
- 생각: 공을 발로 차며 노는 것도 해야 한다.  
- 까닭: 공을 손으로만 주고받는 놀이는 시시하고 재미가 없어서

**3 글을 읽고 '나'라면 어떤 말을 하겠는지 생각과 까닭 쓰기**

- 글을 읽고 '나'라면 어떤 말을 하겠는지 생각과 까닭을 쓴다.  
- 생각: 공을 가지고 놀게 하는 대신 누군가를 다치게 하면 그 사람만 일주일 동안 공을 못 만지도록 하면 좋겠다.
- 까닭: 안전하게 놀아야 서로 다치지 않고 재미있게 놀 수 있기 때문이다.

**4 이어질 낱말을 생각하며 끝말잇기 놀이하기**

- 제시된 낱말에 이어질 낱말을 생각하며 끝말잇기 놀이를 한다.
- 운동장 → 장화 → 화장실 → 실내화 → 화요일  
일기 → 기차 → 차이정 → 정수

**5 그림의 장면을 보고 나의 생각을 친구와 이야기하기**

- 그림을 살펴보고 어떤 상황인지 파악한다.  
- 사람, 고릴라, 코뿔소가 뛰어다니며 시끄럽게 하는 층간 소음으로 아래층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.
- 그림을 보고 층간 소음에 대한 나의 생각을 친구와 이야기 나눈다.  
- 서로 조금씩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. 늦은 밤에는 피아노 치기, 쿵쿵 뛰기, 청소기 돌리기 등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. 왜냐하면 아래층 사람에게 너무 피해가 가기 때문이다.  
- 아래층 사람도 무조건 화를 낼 것이 아니라 낮이나 집에 어린아이들이 있는 경우는 조금 이해하고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. 왜냐하면 서로 이웃을 배려해야 하기 때문이다.



**Tip**

•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툼이나 학생들의 교실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학급의 규칙 문제 등을 다루어 볼 수 있다.

**정리 및 평가**

**1 정리하기**

- 글을 읽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한다.
- 글을 읽고 까닭과 함께 나의 생각을 말한다.

**2 평가하기**

- 글을 읽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았나요?

평가 기준	
상	글을 읽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하여 말할 수 있다.
중	글을 읽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할 수 있다.
하	글을 읽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일부 짐작할 수 있다.

- 글을 읽고 까닭과 함께 나의 생각을 말해 보았나요?

평가 기준	
상	글을 읽고 적절한 까닭과 함께 나의 생각을 말할 수 있다.
중	글을 읽고 까닭과 함께 나의 생각을 말할 수 있다.
하	글을 읽고 나의 생각을 말할 수 있다.